

#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2009년 6월 2일(석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조덕 선임연구위원, 02-3775-0698	2009. 5. 29 작성	총 7p
--------------------------	----------------	------

##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제세미나 개최

건강한 인적자본 유지·보존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학생·농민 재해보험의 우리나라 적용 방안 논의
- 산재보험 발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 ◆ 행사 개요

- 일시: 2009. 6. 2(화) 10:00 ~ 18:00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한국노동연구원, 농촌진흥청,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후원: 근로복지공단,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 언어: 한국어 및 독일어(동시통역)

### ◆ 발표 논문

- 발제1: 「독일 학생재해보험의 기본원리와 평가」  
Josef Micha(독일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 공공부문재해보험 이사장)
- 발제2: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의 발전과 기본원리」  
Christian Figl(오스트리아 농민사회보험청 법률국장)
- 발제3: 「독일 농민재해보험」  
Richard Wurbs(독일농민사회보험조합연맹 재해예방·조직·법령부문 본부장)

·발제4: 「한국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윤조덕(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5: 「농업인 업무상재해 현황과 국가관리의 방향」

이경숙(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농업연구관)

·발제6: 「한국의 농업인재해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진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보도자료 본문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과 농촌진흥청,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2020년부터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부터 성인근로자, 노령농민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동안의 건강한 인적자본 유지·보전과 국가경쟁력 지속적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6월 2일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주제로 한국·독일·오스트리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0.27%에 불과할 전망이다. 15세~64세 인구의 증가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7년경부터는 이들(15세~64세) 인구의 절대 수가 감소할 전망으로 인구의 출생 이후부터 사망시점까지 건강의 유지·보존, 사고·질병 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재활이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 지난 10년간(1998~2007)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10,930명이며 이외에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장애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유치원 원아 537,822명, 초등학생 3,672,207명, 중학생 2,038,611명, 일반계·전문계 고등학생 1,906,978명으로, 이들 어린이는 8,155,61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사고 이후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재활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보호대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독일의 학생재해보험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민재해보험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들 제도의 발전과정과 예방, 보상, 재활 등에 관한 법 규정 및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적 현실 속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조명한다.

□ 6.2 오전에는 Josef Micha 독일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 공공부문재해보험조합 이사장의 ‘독일 학생재해보험의 기본원리와 평가’, Christian Figl 오스트리아 농민사회보험청 법률국장의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의 발전과 기본원리’, Richard Wurbs 독일 농민사회보험조합연맹 재해예방·법령 조직부문 본부장의 ‘독일 농민재해보험’ 등 3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 6.2 오후에는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한국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이경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의 ‘농업인 재해현황과 국가 관리의 방향’,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의 ‘한국의 농업인 재해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등 3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 이 국제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학생과 농민 재해보험의 우리나라 적용 방안, 그리고 산재보험 발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생애주기 동안의 건강 유지·보존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 참고자료

1. 세미나 계획 1부.
2. 주제발표 요약 1부. 끝.

## 한·독·오 국제세미나 계획

- ☐ 주제 :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 ☐ 일시 : 2009년 6월 2일 (화)
-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 주최 : 한국노동연구원, 농촌진흥청,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 ☐ 후원 : 근로복지공단,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 언어 : 한국어 및 독일어 (동시통역)

= 일 정 =

09:30-10:00 등 록

10:00-10:20 개 회

개회사: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인사말: 김재수 (농촌진흥청 청장)

김재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상무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세션 I]

사회: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0:20-11:00 발제 1: 독일 학생재해보험의 기본원리와 평가

Josef Micha (독일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 공공부문재해보험 이사장)

11:00-11:40 발제 2: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의 발전과 기본원리

Christian Figl (오스트리아 농민사회보험청 법률국장)

11:40-12:20 발제 3: 독일 농민재해보험

Richard Wurbs (독일농업부문재해보험조합연맹 행정총무부 문 본부장)

12:20-13:00   패널 토론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권영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교수)  
임상혁 (원진 노동환경연구소 소장)

13:00-14:20   오  찬

[세션 III]

사회: 이수진 (한양대 교수·농촌진흥청 농작업안전사업  
추진단장)

14:20-15:00   발제 4: 한국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00-15:40   발제 5: 농업인 업무상재해 현황과 국가관리의 방향  
이경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15:40-16:20   발제 6: 한국의 농업인재해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16:20-16:35   휴  식

16:35-18:00   패널 토론  
황영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  
이미화 (생활개선중앙회 회장)  
정재희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  
연합 부대표)  
임현술 (동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농어업·농어촌 특  
별대책위원회 농어촌복지 소위원장)  
남태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이재덕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본부 본부장)

18:00       폐  회

## 주제발표 요약

- 독일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 공공부문재해보험조합 이사장인 Josef Micha는 독일 학생재해보험은 1971년에 도입되었으며 40여 년 경과한 오늘날의 평가는 상해를 입은 학생과 그의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내화합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국민경제에 비중 있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농민사회보험청 법률국장인 Christian Figl은 오스트리아 산재보험은 1887년에 도입되었고, 농업인에게는 1929년부터 적용되었다고 하며 제도운영의 오랜 경험과 다양한 사례는 한국의 농업인재해 보장제도 도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독일의 농업부문 재해보험조합연맹 행정총무부문 본부장인 Richard Wurbs는 농림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법은 1886년부터 적용되어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농업인들이 치료, 재활, 농업경영급여, 상해급여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고 최근 예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소개하며, 미래 농작업재해 관리제도의 모습은 재해 보상과 더불어 예방관리제도가 같이 운영되는 모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윤조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1964년 처음 시행되어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농업·임업·수렵업의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 자영농업인과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인적자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생, 농림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농촌진흥청 이경숙 연구관은 ‘농업인 업무상재해 현황과 국가관리의 방향’에서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율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농가의 경제적·노동력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하며, 농작업 재해의 사전예방과 사후보장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특히, 농업·농촌이 국민의 안정적 식량 공급원이고 녹색환경의 유지보전에 기여하므로 이러한 농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한다면 국민이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는 한국의 농업인재해보장제도 도입에 있어 농업인 재해의 성격은 산재의 일반근로자 재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농업인 재해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수급권의 차이, 농업인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적 차원 보장의 특수성, 농업인 재해는 소득손실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토지가 유지된다는 점, 농업인의 가족은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나 근로자 가족은 소득보장의 대상으로 된다는 점 등과 같은 근본적 성격 차이로 농업인에 특화된 제도를 구상하여야 한다고 하며 농업인 재해보장 제도의 기본적 체제를 제시하였다.